Catholic
청년주보

제1040호
2018년 10월 14일(나해)

연중 제28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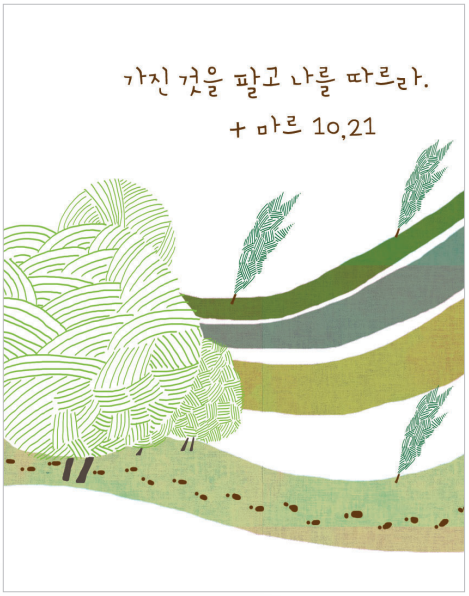

그림 | **김 로사**

입당송 시편 130(129),3-4 참조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옵니다.

제1독서 지혜 7,7-11

화답송 시편 90(89),12-13.14-15.16-17(◎ 14 참조)
◎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가 기뻐하리이다.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저희가 비참했던 그 날수만큼, 불행했던 그 햇수만큼 저희를 기쁘게 하소서. ◎
○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제2독서 히브 4,12-13

복음환호송 마태 5,3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음 마르 10,17-30

영성체송 시편 34(33),11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미래(Future)
어떠한 희망과 목표를 세우고 살아야 할까요?

#내면(Interior Life)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열 수 있을까요?

#선택(Choices)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선택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방식(Ways and Means)
교회는 하느님의 은총과 영성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15차 시노드(synod)

로마 바티칸에서 젊은이를 위한 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교님들이 모여 우리 청년들의 삶과 신앙 그리고 식별 안에서 어떻게 교회가 함께 할 것인지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야 할 키워드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시노드에 대해 4면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물 1호, 영원한 생명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신부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또 얼마나 필요할까요? 살아가기 위한 기본 요소인 '의식주'(옷, 밥, 집)를 제외하고,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열해본다면 그 목록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 강론을 쓰고 있는 제 방을 둘러보아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뿐 아니라 사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눈에 참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어떤 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나만의 '보물 1호'로 여길 수 있을까요? 사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이라는 물적 대상이 아니라, 영적 가치입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것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못합니다. 물적인 것들은 누릴 순 있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곳에서의 누림도 필요하지만, 하느님 나라에서의 영원함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부자 젊은이와의 대화는 이러한 진리를 잘 일깨워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 그 사람에게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마르 10,21)하고 알려 주십니다.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충실히 지켜 왔던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싶어 더욱 열심한 마음을 보였지만,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안락한 삶을 지속시켜 주는 많은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의 삶만 바라볼 때는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넘어선 저세상의 하느님 나라를 믿고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보다 그 재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더 중요한 관심사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도우며 더불어 살아가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나서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가진 재물을 선뜻 이웃과 나누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마르 10,25)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집이 큰 낙타가 그 좁은 바늘 문을 지나가는 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탁하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그분의 이끄심에 내어 맡긴다면, 재물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소유하고 사용하려는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삶의 최우선 가치로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때로는 박해를 불러올 수도 있고, 실망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해야 현세에서의 풍요로움뿐 아니라, 더 나아가 내세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보물 1호는 무엇인가요? 그 무엇보다 '보물 1호'는 확고한 '믿음, 희망, 사랑'의 삶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바람'이어야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는
많은 말을 하는 데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지닌 열정에 달렸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

나의 최후의 만찬

신지철 바오로 신부
(재)한국교회사연구소 부소장

에밀놀데, 〈최후의 만찬〉 1909년, 캔버스에 유채
86×107cm, 덴마크 코펜하겐 국립 미술관

20세기 초 사람들은 이상적인 것을 부정하고 현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과 과학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물질문명의 힘에 사람들은 매료되었죠. 전통적인 것을 거부하고 본능에 내재된 감성에 충실해지려 합니다. 당시 유럽 사회의 혼란과 이념들의 충돌은 사람들의 감정을 불안과 공포로 몰고 갑니다. 심지어 신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니체'라는 철학자의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술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통적 예술을 거부하고 새로운 양식을 창조하려 하죠. 작가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보여주려 단순하고 새로운 색과 새로운 형태를 적용합니다. '절규'라는 뭉크의 작품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사회와 문화의 변화 속에 종교화는 자리를 잃어가고 새로운 형태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독일의 작가 '에밀 놀데'(Emile Nolde, 1867-1956)의 작품들은 그 현상을 잘 보여주죠. 그가 그린 〈최후의 만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일렁이는 감정들을 꾸밈없이 단순하고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작품 속 인물들(예수님과 제자들)은 더는 거룩하거나 성스럽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은 거칠기도, 비겁해 보이기도, 평범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도록 얼굴 형태를 단순하지만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다빈치의 그림에서처럼 과장된 몸짓이나 아름답고 화려한 옷 색깔도 없습니다. 심지어 원근법도 철저히 무시됩니다. 마치 초등학생의 그림처럼 그저 자신이 느끼고 생각했던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앙에 앉아 계십니다. 하지만 평온하거나 거룩하기보다는 그저 고통과 죽음을 예견한 한 인간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의 손도 가냘프거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거칠고 커다랗고 상처가 가득한 손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임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밝은 빛을 띠게, 노란색의 얼굴과 희고 붉은 색의 옷은 강렬한 색채의 대비를 통해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예수님의 고통스럽고 간절함이 배어있는 표정과는 상반되게 제자들은 무표정하게, 누군가는 비열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잡고 있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나 놀라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20세기 초 물질문명과 사회적 혼란 속에 종교와 하느님은 잊혀 가고 있음을 그림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에밀 놀데'의 이 그림은 당시에 급진적이고 많은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에게 이 그림 속의 모습들은 놀랍다거나 너무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색상이나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에밀 놀데'가 가진 감정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혁신적 과학과 기술의 진보로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사는 우리에게 신앙과 성찬례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이 그림 속 인물들처럼 우리는 그저 예수님 앞에 아무런 감정 없이 무감각하게 모여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세상의 것에 취해 하느님을 거추장스럽고 쓸모없이 취급하기도 하겠지요. 예수님의 존재도, 그분의 사랑과 희생도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 뒤편에 숨어 웃음을 띤 유다의 모습일지도 모르지요.

내가 그리고 있는 내 마음속 최후의 만찬은 어떤 모습일까요…?

뜨거운 바티칸! 우리를 위한 시노드

아눈시앗다 지금 바티칸에서는 시노드가 열리고 있대요. 시노드가 뭐예요?

데레사 응. 교회의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각 나라의 주교님들이 모인대.
우리나라에서는 조규만 주교님, 정순택 주교님이 참여하신다고 하네.

아눈시앗다 이번 주제는 '젊은이, 신앙과 성소 식별' 이라는데,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궁금하네요~

시노드(synod)란?

교리, 규율, 전례의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열리는 교회 회의 (가톨릭 대사전) 약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시노드는 2~3주간 진행되며 200~250명의 주교가 참석합니다. 모든 주교에게 발언권을 주며 회의를 하는 동안 다양한 안건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2016년 10월 6일

교황 프란치스코
주교시노드 공표

→

2018년 3월 19일~24일

시노드 역사상 첫 준비모임

전 세계에서 모인 300명 청년 대표들의 의견 모음 (온라인으로는 1만 5천명 참여)

* 설문 조사를 통해 1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의 응답도 반영

→

2018년 10월 3일~28일

제15차
시노드 개최 중

시노드의 안건, 당신에게 묻는다면 어떤 답을 하고 싶나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우리가 지금 삶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불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내일은 불확실성과 의문으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희망과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야 할까요?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를 외치게 만드는 희망은 무엇인가요? 우리 모두 행복하고 특별한 무언가를 해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선택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나요?

#소속감(Actively Involved)

교회는 젊은 세대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접근 방법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또한, 젊은이들은 각자의 개성을 살려 참여해야 합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하느님께서는 알려지지 않은 미래로 가라고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성령의 숨결을 통하여 하느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것을 듣길 바랍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참고 자료 바티칸 뉴스 | **번역** 청년부 번역부 예로니모
편집 김진희 데레사, 이진영 아눈시앗다

찬양의 광장(청년성령쇄신봉사회)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
미사 매주(금) 19시 30분
지도 이성진 신부
문의 010-9017-5538 이근창
장소 천주교 성령쇄신봉사회관(관악구 조원동)3층

성바오로수도회 말씀학교 무료 강좌

말씀학교	장소: 성바오로수도회 본원(송중동) / 회비 없음 바오로서간-콜로새서(자료 제공) 양은철 신부 / 문의: 010-9333-6260
말씀으로 마음치유	말씀으로 내적치유 프로그램 / 회비 없음 일시,장소: 매주(목) 14시, 성바오로수도회(매학기 10주간) 문의: 010-6287-9753 담당 수사

발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편집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주보편집부/ 전화 : 02) 762-5071, 2/ 이메일 : mail@2030.or.kr/ 홈페이지 : www.2030.or.kr/ 주소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2길 49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 인쇄 : 가톨릭출판사